



제3회 APSF정기총회 및 제2회 아시아 유닛로드스쿨 연수교육 성료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상근 부회장 박 은 규

지난 7월 1일부터 4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대우호텔에서 제2회 아시아 유닛 로드스쿨 연수교육 및 제3회 APSF(Asia Pallet System Federation)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연수교육을 성공리에 마치고 APSF의 2대 회장이 한국에서 선출될 수 있었던 계기는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박은규 상근 부회장의 끝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본 기사는 지난 7월 15일자 물류신문사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박은규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상근 부회장은 APSF 출범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 우리나라의 원로 물류인이다.

APSF 3차 총회에 다녀온 박은규 부회장은 이번 총회의 결과와 관련 “획기적인 것은 제대로 APSF를 발전시킬 수 있는 회장 체제를 갖추었다는 점”이라고 단언한다.



△ APSF정기총회 회의

관계자들의 수년간에 걸쳐 쏟아 부은 땀과 열정의 결정체다.

박은규 부회장은 “APSF는 아시아 역내 각 국가들이 국제표준을 자국의 표준으로 채택하도록 홍보하고, 교육하고 지원하는 조직”이라면서 “아시아 공동물류 시스템 구축이라는 시스템 구현을 통해 역내 기업들의 경쟁력 있는 글로벌 경영과 역내 국가들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APSF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박은규 부회장은 우리 정부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유닛로드 (Unit Load System) 스쿨’에 거는 기대가 크다.

‘아시아 유닛로드 스쿨’은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박은규 부회장에 따르면 ‘아시아 유닛로드 스쿨’은 물류표준에 대한 인식이 낮은 동남아 국가들의 표준관련 담당 공무원들과 물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앞서 있는 우리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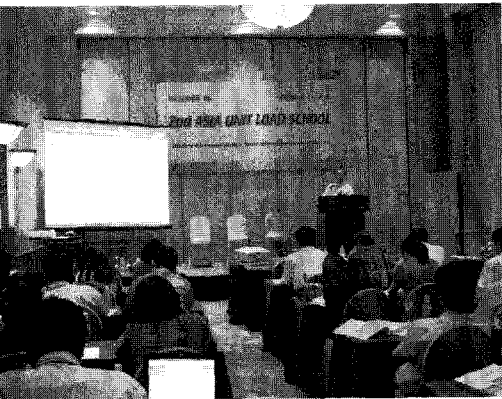
물류표준시스템과 기술을 보급하는 한편 동남아 국가들이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표준인 T-11형을 자국 표준으로 채택하도록 그 필요성을 홍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표준파렛트를 기반으로 하는 아시아 공동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박은규 부회장은 “다만 이 사업이 1년 단위 예산으로 진행돼 장기적 기획이 어렵다는 점이 아쉽다”면서 “온-라인 교육 등 더 많은 아시아 국가의 물류표준 담당자들을 교육

그는 “APSF는 한국 물류인들의 열정이 담긴 조직”이라면서 “특히 이번에 서병훈 한국물류협회 회장이 APSF 2대 회장으로 취임함으로써 APSF 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역내 물류표준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한다.

박은규 부회장에 따르면 APSF는 아시아 물류표준화를 위해 활동해온 국내 물류

관계자들의 수년간에 걸쳐 쏟아 부은 땀과 열정의 결정체다.



△ 박은규 부회장의 연수생교육 강연모습

시기기 위한 장기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주문한다.

※아시아 유닛로드스쿨 교육 및 APSF 회의내용 첨부

제2회 아시아 유닛로드스쿨 교육 실시 (Asia Unit Load School at Hanoi, Vietnam)

1) 교육 배경 및 목적

- 2007년 한·아시아 경제협력사업에서 “ASEAN 국가의 물류표준화 교육을 통한 아시아통합물류시스템 기반 구축”이라는 사업을 실행하여 ASEAN 국가들의 물류 효율화를 위해 최초로 해외 현지(태국 방콕)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ASEAN 5개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참가자들로부터 호평
- 본 교육은 그 후속사업으로서 최근에 경제발전의 속도가 눈부시게 빠른 베트남에서 표준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개최하여 베트남과의 경제협력에 필요한 물류서비스 교육을 제공하여 상호협력을 통한 아시아 경제발전
- 아시아의 파렛트 표준규격인 아시아일관수송용 평파렛트(KS A 2170)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교육 실시

2) 참석자: 총 34명, 베트남 표준기관 (STAMEQ)의 24명, 필리핀 표준기관(BPS)의 2명, 말레이시아 표준기관 SIRIM 2명, 인도네시아 Ministry of Industry의 2명, 태국 선박협회 (TNSC)의 2명

3) 교육일시 및 장소: 2008년 7월 1일 ~ 7월 3일, 베트남 하노이

4) 교육성과

- 동남아시아 5개 국가의 표준담당 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물류표준화의 중요성을 이해시켜 물류설비의 보급이 확대되기 전에 정부차원에서 표준화 작업을 먼저 추진하여 공동물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물류표준화 작업이 이행되면 한국과 공동으로 물류설비를 사용할 수 있어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공동물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 국내기업의 진출시에 보다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업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음

5) 향후 계획

- 2009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교육프로그램 개최할 계획



그림 1. ULS 과정 수료식

제3차 APSF(Asia Pallet System Federation)정기총회 회의록

1) 개요

- 참석자: 총 38명 한국대표단 13명, 일본대표 10명, 중국 2명, 베트남 5명, 필리핀 2명, 말레이시아 2명, 태국 2명, 인도네시아 2명
- 회의일시 및 장소: 2008년 7월 4일, 베트남 하노이 호텔

2) 목적

-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물류표준화를 위해 그 기반이 되는 평파렛트와 관련 파렛트 시스템의 표준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을 위해 2006년 일본 결성된 연맹
- '아시아 일관수송용 평 파렛트' (KS A 2175)규격을 아시아 자국의 표준규격으로 채택하고 업계에 보급하여 아시아 물류표준화 수준을 향상
- 평파렛트와 상자형 파렛트 표준화를 기반으로 하여 '아시아공동물류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상호협력력을 통한 경제발전에 기여

3) 주요성과

- 한·중·일 물류장관회의(2008년 5월17일)에서 결의된 공동성명 전문에 나타난바와 같이 3국간의 파렛트 표준화를 전문가 지원활동의 주요 조직으로서 ASPF가 부속서에 포함

- 본 총회에서 신입회장과 사무국장으로 한국대표가 APSF 회장 (로지스올 그룹, 서병륜 회장), 사무국장(명지전문대학, 엄재균 교수)으로 피선됨으로써 향후 한국이 주도적으로 아시아의 파렛트 및 관련 물류시스템 표준화를 추진
- 아직 APSF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가입할 계획 (향후 총 8개국)

4) 회의 결과

- 연맹규약 개정: 부회장 수 제한을 없애고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부회장으로 참여하여 연맹발전에 기여
- 연맹에 기술위원회를 'Asian Committee for ISO/TC51' 이름으로 설립하여 국제 파렛트 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럽위주의 표준화 활동에서 탈피하여 아시아 지역에서도 국제표준화를 주도하여 ISO/TC51에 반영
- APSF 표준파렛트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아시아국가에서 생산하는 파렛트와 관련 설비들의 품질을 향상시켜서 표준물류 설비의 보급을 아시아 국가에 확대
- 한·중·일 물류장관회의(2008년 5월 17일, 일본 오카야마)에서 합의된 추진과제 가운데 하나인 APSF 표준파렛트 규격의 보급을 위한 전문가 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참여 국가에게 확인
- APSF 인터넷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올려서 모든 회원국들이 교육 자료와 기술정보를 활용 가능



그림 2. 제3차 APSF 총회 각국 대표단